

# When Seoul Meets



## Art

George Condo, 'Red Portrait Composition', 2022, Oil on linen, 215.9×228.6cm © George Condo, Courtesy the artist and Hauser & Wirth, Photo: Thomas Barratt

지난 9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 거대한 블랙홀이 생성됐다. 아트 신에 종사하는 사람을 넘어 문화를 향유하는 수많은 이의 시간과 동선, 호기심과 화제를 끝없이 흡입한 블랙홀의 정체는 바로 '프리즈 서울(Frieze Seoul)'이었다.

Contributing Editor HARRY JUN (디자인 · 건축 저널리스트)





# Frieze Seoul 2022 Review

도 안 되는 시간을 들여 세계 양대 아트 페어로 치고 올라온 것은 기적에 가깝다. 여기에는 런던에서 피어오른 글로벌 아트 신의 격랑을 타고 동시대성에 집중한 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결국 운이 잘 따랐고, 운이 잘 맞았다는 얘기가.

1988년 런던에 있는 골드스미스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하던 젊은 예술가 16명은 템스 강변의 허름한 창고를 빌려 <프리즈(Freeze)>라는 자체 전시를 열었다. 당시 세계 최대 광고회사로 성장한 사치앤드 사치(Saatchi & Saatchi)의 공동 창업자였던 찰스 사치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 전시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앞으로 굉장한 일을 벌이겠다는 확신이 섰다. 전시를 기획한 데이미언 허스트를 비롯해 전시

참여자의 작품을 사치가 사들이고 사치갤러리를 통해 후원하면서 이들은 곧 영국이 세계 아트 신에 던진 양광테라블이 됐다. 바로 'YBAs(Young British Artists)'의 탄생이다. <프리즈> 전시를 주의 깊게 본 이는 사치뿐만이 아니었다. 젊은 미술 평론가 매슈 슬로토버와 어맨다 샤프는 1991년 미술 잡지 <프리즈(Frieze)>를 창간하며 그 표지에 데이미언 허스트의 작품을 실었다. 이들의 안목은 틀리지 않았다. 이듬해 데이미언 허스트가 영국 최고의 현대 미술상인 터너상 후보에 오르고 1995년 결국 터너상을 받았다. YBAs를 포함해 많은 영국 현대 미술 작가에게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지면서 자연스럽게 21세기 현대 미술의 흐름이 런던으로 모이게 됐다. 이런 분위기에서 <프리즈> 매거진이 실험적으로 기획한 아트 페어가 바로 지금의 프리즈 런던이다.

프리즈는 아트 바젤의 성공 루트를 그대로 밟았다. 아트 바젤은 2002년 미국에 진출해 '아트 바젤 마이애미 비치'를 시작했고 2013년 홍콩에서 '아트 바젤 홍콩'을 열었다. 프리즈 또한 2012년 뉴욕으로 건너가 '프리즈 뉴욕'을 시작하면서 같은 해 런던에서 고전 예술 중심의 '프리즈 마스터스'를 열었다. 2019년에는 LA에 날아가 '프리즈 LA'를 개최하며 넓게 뻗

어나갔다. 이후 아시아 진출의 중심지로 선택한 곳이 바로 서울이다. 게다가 그 타이밍도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지금 모든 매체가 집중적으로 기사를 내보낸 바람에 이질감이 들지 않지만, 당연하게도 프리즈 서울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행사가 아니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키아프(KIAF)를 주최하는 한국 화랑협회와 공동 개최에 대해 논의한 끝에 작년 5월 18일 향후 5년간의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그 사이에는 아시아 미술 시장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바로 홍콩의 중국화와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다. 2019년 약 1조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성공하던 아트 바젤 홍콩은 같은 해 일어난 홍콩 민주화 시위 때문에 정국이 불안정해졌고 곧 이어진 강력한 중국화로 인해 수많은 외국 회사와 자본의 엑소더스를 경험한다. 게다가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홍콩을 방문하는 일이 굉장히 까다로워지면서 아시아 아트 허브로서의 위치가 흔들리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프리즈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훌륭한 작가, 갤러리, 미술관 및 컬렉터가 있는 도시"인 서울이 홍콩의 강력한 대체재로 부상했다. 더불어 코로나가 찾아들며 해외 간 교류가 조심스럽게 늘어나는 분위기 속에 데뷔했으니 프리즈 서울은 정말 운빨이 엄청난 것이다.

국내 상황도 보됐다. 최근 2040세대를 중심으로 제2의 미술 붐이 일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 2006~2007년 제1차 미술 붐 때만 하더라도 개인 컬렉터 대부분은 50~60대였다. 그런데 2020년대 들어 그들의 비중은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대신 2040세대가 60%로 확대됐다.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 IT, 스타트업, 온라인쇼핑몰 운영으로 젊은 나이에 큰돈을 번 신중 부유층이다. 더불어 아트 바젤이 글로벌 금융회사인 UBS와 공동으로 발간한 <아트마켓 2022>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동시대 미술 경매 시장에서 국가별 점유율 5위로 뛰어올랐다. 작년 미술품을 수집하는 고액 자산가 비중

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 순위에서 인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게다가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에서 빠져나온 유동성 자금이 미술 시장에 주목하며 미술품이 테레크의 대상이 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럴 때 프리즈라는 글로벌 아트 페어가 제 발로 서울에 찾아오니 이를 기다리던 매체에서는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개인적으로 단일 미술 행사 소식이 포털에 이처럼 도배한 광경은 처음이었다. 아니, 미술과 관련된 그 무엇이 이토록 집중적 관심을 받은 적이 있던가. 얼마짜리 대작이 벽에 걸렸다는 이야기부터 관람 안내, 작품 판매 소식, 한국에 진출한 세계적인 갤러리 소개, 한국을 방문한 외국 유력 미술계 인사의 인터뷰까지 더해지며 각양각색으로 실시간 뉴스를 전하니 대중의 호기심 또한 동하는 게 당연하다. 결국 이 모든 요인이 결합하며 출입구 앞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며 길게 줄 서는 장관을 만든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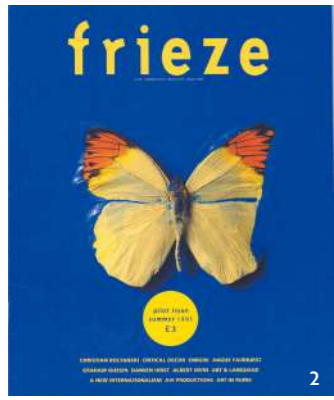
하지만 완벽한 상황은 불가능하다. 일단 코엑스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프리즈 서울(3층)과 함께 개최한 키아프(1층)는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매년 발표하던 매출액을 올해부터 비공개로 돌렸는데, 작년 미술 시장 붐에 힘입어 650억원이란 사상 최대 매출을 거두면서 올해 3배인 2000억원을 예상하던 호방한 기색은 사라진 지 오래다. 추정 매출액은 약 700억원. 프리즈 서울에 찾아온 구매력 있는 컬렉터가 키아프에도 들러 작품을 싸잡아하는 낙수 효과를 기대했지만 정작 프리즈 서울만 보고 떠나는 바람에(사실 프리즈만 봐도 체력 소모가 엄청나다) 키아프에는 아트테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북적였다. 프리즈 서울의 섹션 구성에도 문제가 많다. 아트 바젤 홍콩이 아시아 아트 신과의 동반 성장을 약속하며 메인 섹션의 절반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갤러리에 배당한 것과는 달리 이번 프리즈 서울의 메인 섹션에서 아시안 갤러리는 20% 남짓이다. 2010년 이후 설립된 아시안 갤러리만을 위한 '포커스 아시아

(Focus Asia)' 섹션을 마련했지만, 부스 자체가 워낙 작고 메인 섹션에 둘러싸여 그 존재감이 희미했다. 프리즈 마스터스 개최 10주년을 맞이해 특별히 기획한 프리즈 마스터스 섹션은 고대 유물부터 근현대 거장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큰 화제를 모았다. 그런데 언론에서 피카소, 마티스, 에곤 실레, 리히텐슈타인, 바스키아 등 마스터스 섹션의 작품을 경쟁적으로 소개하는 바람에 프리즈 서울의 이미지가 프리즈 마스터스와 뒤섞여버렸다. 이는 명백히 브랜드 관리의 실패다. 프리즈 마스터스는 프리즈 런던이 열리는 기간에 맞춰 연계되는 독립적인 아트 페어이기 때문이다. 동시대 현대 미술을 실험적으로 소개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고유의 정체성이던 프리즈가 서울에서의 첫 단추를 기묘하게 끼운 셈이었다. 덕분에 내년엔 열리는 프리즈 서울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예상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즈 서울은 결국 국내 아트 신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뮤지엄 기획전에서 올드 마스터의 작품을 접하거나 국내외 갤러리 공간에서 검증된 동시대 작가의 작품을 보던 기존의 미술품 노출 방식에 큰 균열이 생겼다. 인터넷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거나, 외국에 나가야만 제대로 볼 수 있던 다양한 동시대 작가의 작품을 이제 한국에서 접할 기회가 대폭 늘어났다. 작품을 대규모로 바라바리 싸 들고 들어오는 아트 페어에 국한한 이야기는 아니다. 프리즈라는 1차 시험을 통과하며 국제 무대에 편입된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은 외국의 수많은 갤러리가 소속 작가의 작품을 한국에 설치한 분점 혹은 여러 루트를 통해 지속해서 선보이는 동력이 된다. 동시에 한국이란 갈라파고스에서 갇혀 있던 여러 아티스트가 국제 무대에 자연스럽게 소개되는 기회가 생긴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하지만 아트 페어는 본질적으로 비즈니스의 영역이다. 결국 상황을 아무렇게 소화하는 자가 승리한다. 승리의 여신이 한국에게 부디 관대하기를 기원할 뿐이다.



1 부스에 걸린 그림에 집중하는 관람객들.  
2 <프리즈> 창간호 표지에 데이미언 허스트의 나비 작품을 실었다. 3 프리즈 서울에는 총 119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4 프리즈 서울을 위해 코엑스 곳곳에는 홍보물이 래핑됐다.





MAIN SECTION 1

프리즈 서울의 꽃은 뭐니뭐니해도 메인 섹션이다. 세계 유수의 갤러리가 이번 프리즈 서울에 참여했는데 특히 지금까지 한국에 진출하지 않았던 세계의 양대 메가 갤러리인 가고시안과 하우스&워스가 동시에 참여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응장했던 가고시안 부스 전경. 오른쪽에 걸린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의 작품은 첫날 1500만 달러에 팔렸다.  
© Photo: Sebastiano Pellion di Persano, Courtesy Gagolian



관람객에게 인기 있던 하우스&워스 부스 전경. 중심에 걸린 조지 콘도(George Condo)의 2022년 신작은 첫날 국내 사립미술관이 280만 달러에 구입해 큰 화제가 됐다.

Gagosian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상인 래리 가고시안이 1980년 설립한 갤러리로 현재 전 세계 총 19개 지점에서 한 해 매출만 1조원을 훌쩍 넘겨 자타공인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해가 지지 않는 가고시안 제국'이라고도 불린다. 창립자 래리 가고시안은 손대는 작가마다 스타 반열에 올려놓아 '고고(Go-Go)'라는 별명으로 유명한데, 그와 함께한 작가의 상업적 가치가 한없이 올라가는 기현상 덕분이다. 그만큼 갤러리가 관리하는 작고 작가와 동시대 작가 리스트가 화려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가고시안 갤러리는 뮤지엄 수준의 전시회를 개최하며, 그 면적을 모두 합치면 영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관 테이트 모던보다도 더 넓다. 가장 상업적이고 화려한 갤러리지만 동시에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매거진 <가고시안 퀴럴리>를 비롯해 가고시안이 제공하는 각종 정보는 업계에서 깊이 있는 콘텐츠로 유명하다. 래리 가고시안은 올해 크리스티 옥션에서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초상화 작품을 1억 9500만 달러에 낙찰받으며 피카소 작품이 기록한 20세기 미술품 경매 신고가를 경신했다.

Hauser & Wirth

지금 현대 미술을 둘러싼 가장 영향력 있는 갤러리 리스트에서 가고시안, 데이비드 즈위너, 페이스 등과 함께 늘 빠지지 않는 곳으로, 명실공히 업계 1위인 가고시안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이인자다. 1992년 스위스의 유명 화상인 우르술라 하우스와 그의 딸 마누엘라 워스, 사위인 아이반 워스가 스위스 취리히에서 시작한 갤러리는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현재 미국, 영국, 스페인, 모나코, 홍콩에 이르기까지 13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다. 하우스&워스를 이끄는 아이반 워스와 마누엘라 워스는 2015년 영국의 미술 잡지 <아트리뷰>에서 선정한 전 세계 미술계 파워 인사 리스트인 '파워100'에서 함께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하우스&워스는 역사적 장소나 건물을 복원하고 개조해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상업 갤러리지만 지역 커뮤니티와 예술을 연결하는 공공 프로그램을 중시해 미술기관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는 점도 독특하다. 작년에 출판한 마르셀 뒤샹의 카탈로그 레조네는 <뉴욕타임스> 선정 2021년 최고의 미술 서적 목록에 올랐다.



Rick Lowe, 'Untitled #06102022', 2022, Acrylic and paper collage on canvas, 152.4x121.9cm © Rick Lowe, Photo: Thomas Dubrock, Courtesy the artist and Gagolian



Jia Aili, 'Boccioni in the Wind', 2022, Oil on linen, 100x93x4.5cm © Jia Aili, Photo: Yang Hao, Courtesy the artist and Gagolian



Tetsuya Ishida 'Untitled', 2000, Acrylic on canvas, 24.8x22.3cm © Tetsuya Ishida, Photo: Elite Wong, Courtesy Estate of Tetsuya Ishida



Nicolas Party, 'Clouds', 2022, Soft pastel on linen, 99.1x88.9x3.2cm © Nicolas Party, Courtesy the artist and Hauser & Wirth, Photo: Adam Reich



Philip Guston, 'Untitled (Outsider)', 1972, Oil on paper, 58.4x71.7cm © The Estate of Philip Guston, Courtesy the Estate and Hauser & Wirth, Photo: Genevieve Hanson



Günther Förg, 'Aller Retour', 2008, Pastel on handmade paper, 72.1x93.5cm © Estate Günther Förg, Suisse / VG Bild-Kunst, Bonn 2020, Courtesy the Estate Günther Förg, Suisse, Photo: Jon Etter



MAIN SECTION 2

넓디넓은 프리즈 서울 첫 회의 메인 섹션에서 주목할 만한 부스는 어디였을까. 혹자는 작품을 보지 누가 갤러리 부스에 목을 매냐고 하지만, 글로벌 아트 페어에서 갤러리의 큐레이팅 능력이 드러나는 부스의 존재감은 빼놓을 수 없다. 세계적인 아트 어드바이저인 앨런 슈워츠먼(Allan Schwartzman)의 눈길을 끈 메인 섹션 부스를 소개한다.



Allan Schwartzman

1977년 미국 뉴욕의 뉴 뮤지엄의 개관 멤버로 시작해 1980년까지 큐레이터로 일한 앨런 슈워츠먼은 자타공인 세계 최고 수준의 아트 어드바이저로 업계에서 존경받는 구루로 통한다. 30년 이상 다수의 슈퍼 컬렉터에게 아트 컬렉션을 자문하며 뮤지엄 수준으로 프라이빗 컬렉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힘써왔다. 특히 브라질의 광산 재벌 베르나르두 피스가 소유한 이노칭 미술관의 컬렉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아티스트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트 컬렉팅에 대한 지금 조달, 작품 구매, 작품 판매, 상속에 이르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AAP를 창립했고, 2016년 소더비 옥션에 회사를 5000만 달러에 매각했다. 이후 소더비의 미술 부문 회장을 맡다 2020년 독립해 현재 자신의 회사인 '슈워츠먼&을 이끌고 있다.

Commonwealth and Council

커먼웰스 앤드 카운슬은 2010년 미국 LA에서 시작한 젊은 갤러리다. 예술가이자 큐레이터로 활동하던 영 청은 주말마다 자기 아파트를 신진 예술가를 위한 비공식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갤러리로 활용했다. 커먼웰스 애비뉴와 카운슬 스트리트에 속한 아파트 주소에서 유래한 갤러리 이름은 2011년 코리아타운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예술이라는 대화의 공유를 통해 다양한 정체성과 경험을 기념하며, 여성, 퀴어, 유색인종(POC)과 관련된 개인과 집단의 현실을 반영하는 대항적 역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16년 <W> 매거진이 선정한 'LA 최고의 대안 갤러리' 리스트에 포함됐고, 2022년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의 로마 노르테에 두 번째 지점을 열었다.



© Courtesy of the artists and Commonwealth and Council, Los Angeles and Mexico City, Photo: Creative Resource



kurimanzutto

1999년 멕시코에서 시작한 쿠리만주토는 건물 없이 동네 시장에서 첫 9년을 보내면서 로컬 커뮤니티와의 결속을 다지는 독특한 활동으로 명성을 얻었다. 중남미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갤러리로 자리 잡은 쿠리만주토는 프리즈 서울에서 라틴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작가의 작품 11점을 선보였다.



Rirkrit Tiravanija & Cooperativa 1050°, 'untitled', 2022, Barro negro sin bruñir (Leopoldo Barranco, San Bartolo Coyotepec), 21x18x17cm, 22x18.5x15cm, 21.5x20.5x20.5cm ©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rimanzut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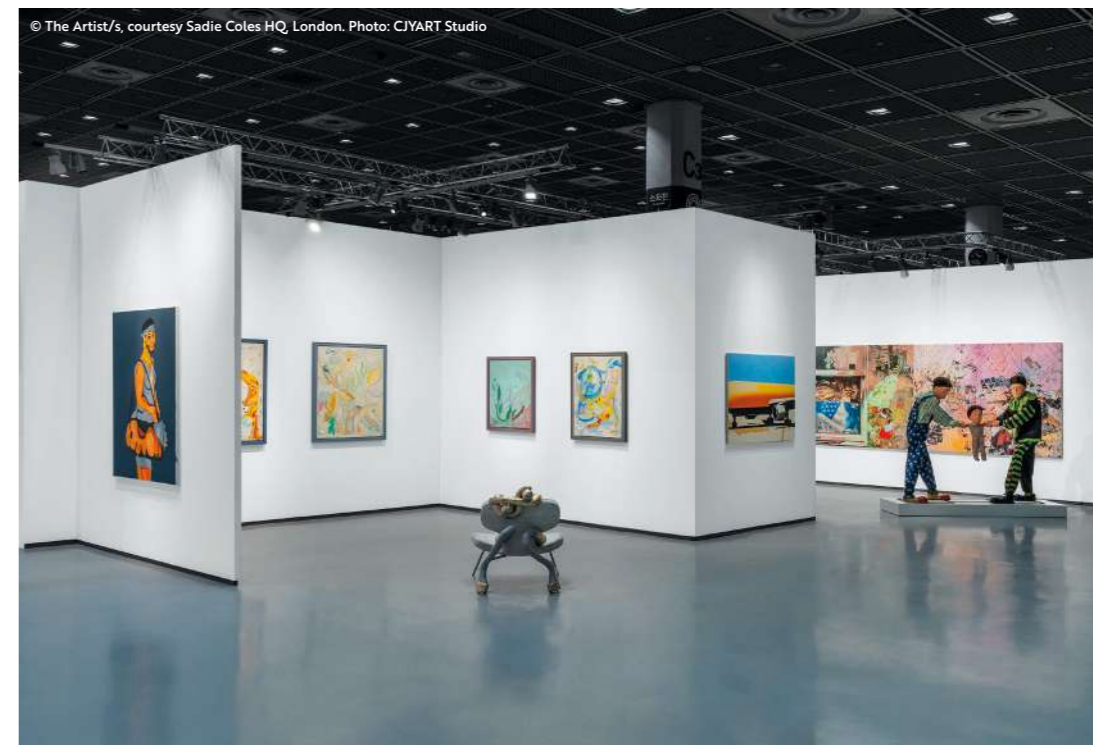
Rirkrit Tiravanija, 'untitled', 2022, Mezcal, Clay with acrylic and ashes on newspaper on linen, 191x173x3.2cm ©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rimanzutto

Sadie Coles HQ

새디 콜스 HQ는 지난 25년간 거장과 신진 작가를 조망하며 업계에서 인정받은 명문 갤러리로 런던에서 지점 세 곳을 운영 중이다. 프리즈 서울에는 우고 론디노네(Ugo Rondinone), 엘리자베스 페이튼(Elizabeth Peyton)을 비롯해 갤러리를 대표하는 YBAs 멤버인 세라 루커스(Sarah Lucas)의 작품을 소개했다.



Laura Owens, 'Untitled', 2022, oil, acrylic, Flashe, oil stick and charcoal on linen, Flashe on wood, 91.7x71.3x3.8cm © Laura Owens, courtesy Sadie Coles HQ, London. Photo: Annik Wetter



© The Artist/s, courtesy Sadie Coles HQ, London. Photo: CJVART Studio



MAIN SECTION 3

이번 프리즈 서울에는 메가 컬렉터들이 전세기를 타고 방한했다. 자신만의 안목으로 컬렉션을 구축하는 그들에게 이번 프리즈 서울은 어땠을까. 홍콩의 억만장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메가 컬렉터인 에이드리언 첩(Adrian Cheng)에게 물었다. 당신의 원픽은?



Adrian Cheng

에이드리언 첩은 홍콩 최고의 부호 중 한 명인 고(故) 청유통의 손자로 현재 홍콩 최대 부동산 유통 기업 뉴월드그룹의 CEO 겸 부회장을 맡아 홍콩과 중국 본토에서 수많은 건물을 개발한다. 시가 총액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보석상인 저우다푸(周大福)의 전무 이사로 맡고 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창업한 K11을 통해 예술과 상업이 결합한 흥미로운 리테일 공간을 구축 중이다. 첩 가문의 재산은 23억 달러에 달한다. 동시에 그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아트 컬렉터다. 수많은 미술 행사를 중흥시킨 돌아다니며 마음에 드는 작가의 작품을 톡 크게 사들인다. 홍콩을 벗어나 유럽, 미국에까지 광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세계 아트 신에서 동시대 중국 예술가를 후원하고 새로운 전시, 행사를 기획한다. <아트리뷰>의 '파워100'에 컬렉터로서 높은 순위에 계속 선정되며 그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타카 이시 갤러리는 동시대 아트 신을 리딩하는 갤러리 중 하나다. 도쿄와 홍콩에 모두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과 홍콩 현지 작가뿐 아니라 다양한 외국 작가를 대표하며 글로벌 예술 산업에서 중요한 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일본 현대미술가를 국제적인 플랫폼으로 조명하는 갤러리의 프로그램은 굉장히 흥미로우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더욱더 넓히고설켜며 세계화되는 세계에 사는 자데 파도주티미 같은 예술가는 세계화된 문화의 융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배경을 가진 그의 예술적 프로파일은 오직 우리 세대에서만 찾을 수 있다. 선명한 보라색과 빨간색 팔레트가 거대한 스케일의 캔버스를 덮는 파도주티미의 작업은 지금을 사는 우리 세대의 추상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영국의 유산과 일본 문화가 융합한 산물인 그의 작품에서 흥미로운 점은 추상적인 언어로 번역한 시적, 문학적 글쓰기가 작업 과정에서 핵심을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작품에는 파도주티미와 그가 속한 유산 모두에 대한 정체성이 배어 있다. 이런 추세가 증가하는 요즘 미술계에서 그가 시도하는 문화 간의 대화에 매료되지 않기로 쉽지 않다. 나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음악에서 영감 받는 그의 추상화가 정말 마음에 든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 교류를 보여주는 그의 모습에 공명하고 싶을 정도로. 이는 문화기업가로서 나의 포부와의 연결되는 지점이다.”



© Photo by Anamathia Kim / Pdebarac

Jadé Fadojutimi

자데 파도주티미는 영국 출신의 흑인 화가이자 세계 미술계에서 떠오르는 샛별이다. 1993년 태어난 그는 어렸을 적 일본 애니메이션의 비주얼과 사운드트랙이 끌어내는 강렬한 감정과 그 속에 숨은 철학적인 스토리라인에 매료됐다. 일본어를 배우고 여러 번 일본을 방문하며 교토에서 교환학생 생활까지 했을 정도다. 나이지리아 이민자 출신의 부모를 둔 그는 영국, 나이지리아, 일본 등 다양한 문화적 혼종을 바탕 삼아 광적인 붓놀림과 색상의 충돌을 일컫는다. 일기장에 메모한 순간의 감정과 메모, 자연과 인간에 대한 생각을 광대한 크기의 캔버스에 압도적인 색채로 쏟아낸다. 런던의 명문 예술대학인 슬레이드 스쿨을 졸업하고 왕립예술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딴 그는 현재 전 세계 4개 갤러리와 계약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가고시안. 올해 베네치아 비엔날레에 초청됐으며, 역대 최연소로 영국 테이트 미술관 영구 소장품 리스트에 자기 작품을 추가했다. 워싱턴DC 허쉬호 뮤지엄, 볼티모어 뮤지엄, LA카운티 뮤지엄, ICA 마이애미, 워커 아트 센터에서도 그의 작품을 소장 중이다.



Jadé Fadojutimi, 'Resonate Rain, rain down, down on me, and you, and ourselves', 2022, Oil, acrylic and oil stick on canvas, 250×400cm © Jadé Fadojutimi, Courtesy of the artist and Taka Ishii Gallery, Photo by Michael Brzezinski

FOCUS ASIA

이번 프리즈 서울에 지역성을 가미해 신설한 섹션은 바로 '포커스 아시아'다. 2010년 이후에 문을 연 아시아인 갤러리 중 선정된 곳은 각 소속 작가의 작은 개인전 느낌으로 부스를 꾸몄다. 가장 젊으면서 로컬의 특징을 잘 볼 수 있는 기회다. '큐레이터의 큐레이터'라 불리는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Hans Ulrich Obrist)가 자신의 마음을 훑친 부스 두 곳을 콕 집어줬다.



© Lukas Wassmann

Hans Ulrich Obrist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는 동시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큐레이터로 꼽히며, '큐레이터의 큐레이터'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1968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난 그는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마니페스타(1996), 베를린비엔날레(1998), 리옹비엔날레(2007), 요코하마비엔날레(2008) 등 중요한 현대미술제와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는 빈 뮤지엄에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폰프텐테와 함께 20세기 현대미술을 다루는 파리의 양대 산맥인 파리시립현대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런던의 상징적인 비영리 갤러리인 서펜타인 갤러리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며 프로젝트 기획, 작가 발굴, 저작 활동을 멈추지 않는 그의 별명은 '절대 잠들지 않는 큐레이터'다. 2009년 <아트리뷰>가 선정한 '파워100'에서 큐레이터로서는 최초로 1위에 선정됐고, 2016년 다시 한번 1위에 오르는 기쁨을 토했다.



P21  
Sungsil Ryu

“류성실은 (단연코) 서울에서 활약하는 젊은 아티스트 중 가장 흥미로운 작가다. 1993년생인 그는 한국 미술계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새로운 세대로서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을 받기도 했다.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수상 기념 전시에 출품한 작품으로 이번 포커스 아시아에 참여하며 대중과 인사를 나눴다. 그는 지난 수년 동안 가상의 인물과 브랜드를 만들고 죽음이 존재하는 평행 우주 속 세계를 창조해왔다. 오늘날 동시대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곧 한 인물이 사회적으로 지각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그의 작품은 비가시적 세계를 가시적으로 전환한다. 한국 사회를 냉철히 분석하면서도 동시에 유머를 잊지 않는 반전미가 돋보이는 작가다.”



Sokyo Gallery  
Kimiyo Mishima

“키미요 미시마는 '아티스트의 아티스트'다. 젊은 작가는 그의 작품을 동경하고 사랑한다. 예를 들어 리크리트 티라바니자는 그의 도예 작품에서 깊은 영감을 받은 후 열렬한 추종자가 됐다. 어느덧 90세를 넘긴 이 작가는 나이가 무색하게도 지금까지 왕성하게 작업 중이다. 그는 도자기라는 물성을 통해 세월이 지나며 부서져 사라질 수 있는 출판물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는 작업을 펼친다. 보통 신문과 만화책을 도자로 빗어내는데 올덴버그와 워홀, 그리고 일본의 구타이 사조와 평행선을 달린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그는 팝아트와 전통 공예 기술을 연결하며 과거와 현재의 모순적인 공존을 보여준다. 때때로 미래는 과거의 편린에서 피어나기도 하니까 말이다.”



**FRIEZE MASTERS SECTION**

이번 프리즈 서울에서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프리즈 마스터스 섹션이다. 프리즈 런던이 열리는 때에 맞춰 동시에 열리는 프리즈 마스터스는 고대 유물부터 근현대 거장의 작품까지 다채롭게 훑는 걸로 유명하다. 프리즈 마스터스 개최 10주년 기념으로 페어의 디렉터인 네이션 클레먼트-길레스피의 기획 아래 프리즈 서울에 출현한 진귀한 마스터피스를 소개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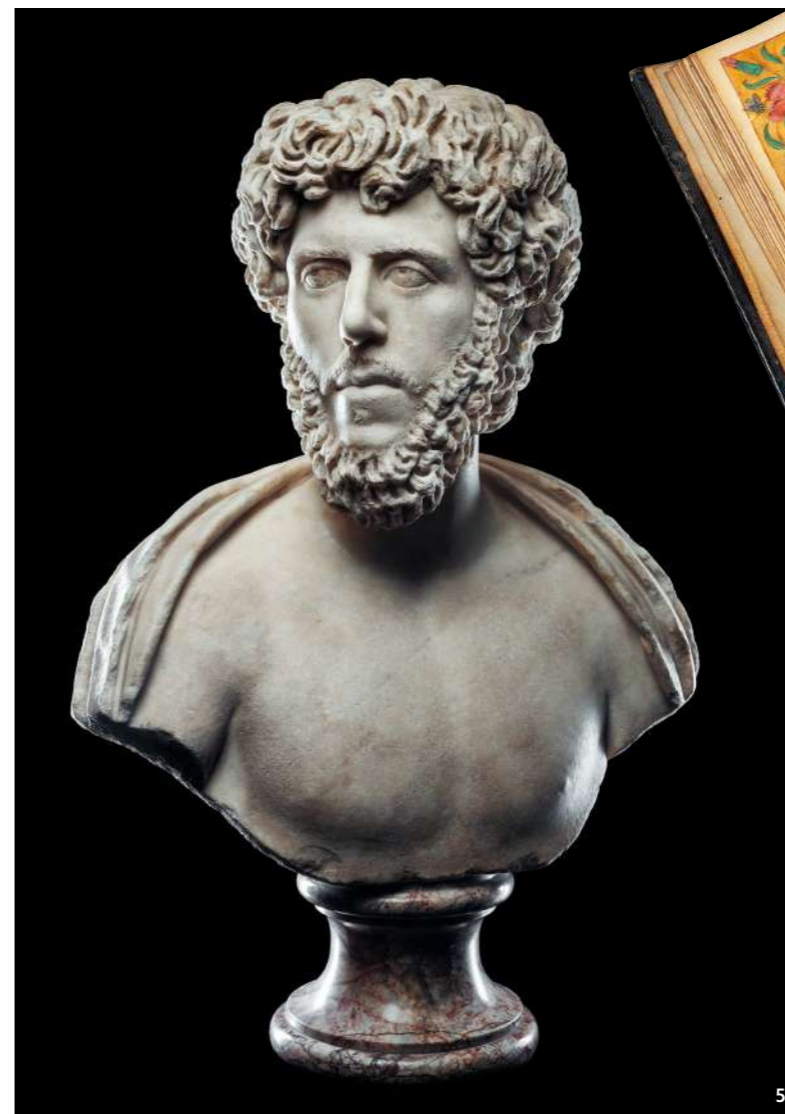
3



4

3 '팝아트'의 왕자로 불리던 레오 카스텔리가 뉴욕에 세운 전설적인 갤러리 카스텔리는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만으로 부스를 꾸었다.  
Roy Lichtenstein, 'Study of Hands (Study)', 1980, Painted and printed paper and marker on board, 77.3x76.2cm © Estate of Roy Lichtenstein

4 에곤 실레의 작품 40여 점을 가져온 런던의 리처드 내기 부스는 관람객이 줄 서서 보는 장관을 연출했다.  
Egon Schiele, 'Self Portrait', Executed in 1910, Watercolour and charcoal on paper, Signed 'S', lower left; signed and dated 'S.10.', lower right, 45.2x30.5cm Private Collection © Courtesy Richard Nagy Ltd., London



5



6



7

5 데이비드 아론이 선보인 로마 시대 대리석 흉상.  
'Portrait Bust of a Man', possibly Lucius Verus, circa 161-169 A.D., Roman, Marble, H: 58cm (without base) / 73 cm with base, W: 50cm © Courtesy David Aaron Ltd

6 파리에 근거지를 둔 레정뤼미누르는 중세 채식필사본과 엔티크 주얼리를 선보였다.  
'Book of Hours (use of Rome)', circa 1500, Southern Netherlands, Bruges © Courtesy Les Enluminures

7 'Pendant with Virgin Mary as Queen of Heaven', circa 1550-1560, Gold, enamel, diamonds, and pearls, Western Europe, Weight 13.2gr.; Dimensions 36.9x31.2mm © Courtesy Les Enluminures

1,2 올해로 창립 101년을 맞는 미국 아쿠아벨라 갤러리는 피카소, 베이컨, 마티스, 자코메티 등 전설적인 거장의 작품을 가져오며 관람객의 필수 코스로 등극했다. 특히 피카소 작품의 선정가는 4500만 달러에 달했다.  
© Courtesy Acquavella Galleries, New York, Palm Beach.



2

**프리즈 서울의 파트너들**

프리즈 서울에는 다양한 파트너가 존재한다. 그중 아트 페어라는 취지에 맞게 한국 작가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관계망을 구축한 브랜드를 꼽아본다.



**생 로랑 × 이배**

생 로랑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안토니 바키렐로의 기획으로 '숲의 작가' 이배와 협업해 프리즈 서울 부스와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신작을 선보였다.



**메종 루이나 × 김중학**

메종 루이나는 '사계의 예술가' 김중학과 협업해 '블랑 드 블랑 세컨드 스킨 매그넘' 15병에 자연과 생물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샤넬 코리아 '나우&넥스트'**

프리즈가 샤넬 코리아의 후원을 받아 제작한 영상물 '나우&넥스트'는 국내 기성 예술가 3인(박진아, 박경근, 정희승)과 신진 예술가 3인(유예림, 이우성, 김경태)이 짝을 이뤄 예술적 대화를 통해 현재의 성취와 미래의 비전을 그렸다. [A]